

# 혁신벤처업계 “서울 경제정책 1순위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서울시장 후보들에 제안서 전달  
창업·투자·인재 등 과제 담아  
글로벌 벤처허브 구축 제안  
투자플랫폼·실증 개방 제시  
“시정과제 반영 기대” 강조

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혁신벤처업계가 서울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창업·투자·인재·규제·공공수요 등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허브 구축 ▲혁신벤처 클러스터 조성 ▲AI·딥테크 성장기반 마련 ▲서울 스케일업 투자 플랫폼 구축 ▲서울 도시문제 해결형 공공수요·실증테스트베드 개방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조례 등 제도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27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협회 이민화 라이브러리에서 진행한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구에 있는 협회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선 정원오 후보와 박홍배 의원 등이, 벤처협회에선 송병준 회장, 이주안 수석부회장, 이용근 수석부회장, 김기혁 부회장이 그리고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신협)에선 김학균 한국

벤처캐피탈협회장, 유동준 한국엔젤투자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협단체에는 이들 단체 외에도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벤처협회는 지난 22일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소

속 김선동 총괄본부장에게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벤처협회가 분석한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만 전체 벤처기업(3만8598개사)의 28.4%인 1만893개사가 있다. 서울지역 벤처기업은 소프트웨어개발(27.6%), 정보통신(15.6%), 기타서비스(15.1%) 등 첨단서비스형 벤처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는 서울의 산업·투자 기반을 고려할 때 서울시 창업정책은 창업지원에서 발전해 실증, 투자, 공공수요, 글로벌 스케일업이 연결되는 성장정책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병준 회장은 “서울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는 벤처·스타트업이어야 한다”며 “서울이 ‘G2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투자받고, 실증하고, 세계시장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청년 일자리와 AI·

답테크 시대 산업경쟁력의 핵심 주체로, 전달한 정책제안이 후보자의 공약과 향후 당선이 될 경우 서울시정 과제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혁신벤처업계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벤처정책 제안서에서 지역 벤처생태계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도 강조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벤처기업 10곳 중 6곳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현재 전체 3만 8000여개 벤처기업 중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벤처기업은 2만5000여개로 전체의 65.4%에 이른다. 특히 경기(1만2000여개)와 서울(1만1000여개)에 전체의 60% 이상이 집중해 있다. 2020년 당시만해도 수도권 벤처기업 비중은 59.9%였다. 이 수치는 62.1%(2021년)→64.8%(2022년)→65.2%(2023년)→65.5%(2024년)로 점점 늘어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혁신기업 2면

### 中 광동성지회 설립해 현지 진출 확대

메인비즈협회, 해주서 창립총회  
한·중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  
한국·중국기업 25개사 참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중국 광동성에 지회를 세우고 회원사들의 현지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27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동성 해주서 르네상스 호텔에서 ‘메인비즈협회 중국 광동성지회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창립총회에는 주광저우안동우부총영사, 해주시 티칭 상무국장, 한중산업단지 오양지 책임서기, 중국한국인기업협회 김성근 이사장,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이지훈 관장 등 한·중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왼쪽)이 중국 광동성지회 손중수 초대 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광동성지회는 중국 경제의 핵심 거점인 선전, 광저우, 둥관, 후이저우를 중심으로 광동성 전역에서 활동한다. 현재 한국기업 10개사와 중국기업 15개사 등 총 25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초대 지회장에는 중국 해주에 위치

한성지전자 해주유한공사의 대표이자 중국 내 한인 경제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손중수 대표가 임명됐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글로벌 제조·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이번 지회 창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회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해외 협력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창립총회와 연계해 해주상무국 투자설명회와 현지기업 시찰도 진행하며 중국 현지 투자환경과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승호 기자

### 넥센타이어, 기아 셀토스 수출차 타이어 공급

북미·유럽 주요 시장 공급 확대  
국내 이어 수출차로 범위 넓혀

넥센타이어가 올해 해외 주요 시장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 데 이어 기아의 대표 소형 SUV 셀토스의 해외 수출 차량에도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적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넥센타이어는 기아 ‘디올 뉴 셀토스’ 해외 수출 차량에도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넥센타이어가 타이어를 공급하는 기아 셀토스는 출시 약 7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기아 SUV 중 최다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셀토스는 지난해 24만 3849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며 스토티지에 이어 해외 판매 2위를 차지했다. 특히 2세대 신형 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추가를 통한 상품성 강화

로 글로벌 소형 SUV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국내 출시 모델에 ‘엔프리즈 S’와 ‘엔페라 AU7’을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으로 공급 범위를 넓혔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공급을 통해 동일 차종에 시장별로 다른 제품을 공급하는 맞춤형 신차용 타이어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넥센타이어는 북미 시장에 미국과 캐나다에 공급되는 16인치 사양에 엔프리즈 S(N‘PRIZ S)를,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에는 여름용 타이어로 16인치와 18인치에는 ‘엔페라 프리머스’, 19인치에는 ‘엔페라 스포츠’를 각각 공급한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KGM 무쏘, 르노 필라트 등 국내 주요 전략 차종과 포르쉐·BMW·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직무발명·IP금융으로 기술혁신기업 성장 지원

이노비즈협회, IP 전략 컨퍼런스  
산업·과기·법조계 400여명 참석  
직무발명·IP금융 성장 해법 공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지식재산(IP) 전략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추가 성장 모색에 나섰다.

27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식재산처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2026’ 컨퍼런스를 전날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제도와 IP 금융 전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2026’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락을 통해 기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연구자)의

직무상 발명을 사용자(기업 등)가 승계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진행된 강연에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투자유치 효과부터 분쟁 해결 해법까지 총망라해 기업의 스케일업에 직결되는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와 분쟁 대응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노비즈협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직무발명 및 국내외 핵심 IP 확보, 특허분쟁 대응 외에도 부처 간 기술평가 데이터 연계 및 토론회(STO) 기반의 IP 유통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행정적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 KCC글라스, 업계 첫 정품 유리 인증제 도입

유통 과정 품질관리 강화 목적

KCC글라스가 유리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정품 유리 인증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27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국내 건자재 시장은 자재가 여러 중간 업체를 거쳐 현장에 납품되는 복잡한 유통 구조로 돼 있다. 특히 유리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저품질 유리가 혼입되더라도 출처 확인이 쉽지 않다.

KCC글라스는 이러한 혼입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KCC글라스의 판유리가 적용된 현장을 대상으로 정품 유리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공사 시작 전 건설사로부터 인증 요청이 접수되면 KCC글라스가 현장, 가공 업체, 유리 사양, 적용 물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예비 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장 실사 단계에서는 검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용 XRF(X-Ray Fluorescence) 성분 분석기’를 활용한다.

KCC글라스의 판유리가 고유한 조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정품 유리 사용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다. 회사측은 또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유리 가공 기업에 회원사 자격과 인증을 부여하는 ‘이마스터클럽(e-MASTER Club)’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저품질 유리의 혼입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KCC글라스의 정품 유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품 유리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